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종렬 · 김혜진¹ · 고효진²백석문화대학 보건재활학부 · ¹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 ²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The effect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ng-Ryol Lee · Hye-Jin Kim¹ · Hyo-Jin Ko²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Baekseok Culture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²Department of Biomedical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Received : 3 September, 2013
Revised : 8 November, 2013
Accepted : 21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Hyo-Jin K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614-714, Korea.
Tel : + 82-51-890-4237
+ 82-10-5102-2858
Fax : + 82-51-890-2623
E-mail : ginigo@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Ulsan from March to May 2013.**Results** : Self-esteem had a positive 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r=0.487$, $p<0.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0.308$, $p<0.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influence on department satisfaction ($r=0.347$,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positive relations with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p<0.001$), satisfaction with school facilities($p<0.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p<0.001$), choice motive for dental hygiene($p<0.05$), self-esteem($p<0.05$), and gender($p<0.05$).**Conclusions** : To improve the department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by group counseling and active communication program.**Key Words** :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self-esteem**색인** :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학과만족도

서론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인 '대학문화'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¹⁾. 대학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현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활에는 진학할 때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대학 진학 시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시 하게 되면서 진학 후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과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 첨단화,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과 함께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치과위생

사의 업무는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³⁾,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인교육을 동반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⁴⁾.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적 팽창으로 늘어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치위생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과 자긍심은 물론 완성된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인격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업에 대한 관심도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의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⁵⁾.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내적 평가도구로써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질이고 사회적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⁶⁾.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⁷⁾.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⁸⁾,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욱 확대 해석하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것은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⁹⁾.

치위생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학과 만족도 및 적응도에 관한 연구^{10,11)}, 학과 만족도와 취업태도에 관한 연구^{12,13)}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학과 만족도와 진로방향에 대한 연구¹⁴⁾ 및 학제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전문직업관에 대한 연구¹⁵⁾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선택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역 3개 대학과 울산지역 1개 대학 내 일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4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8부(95.5%)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누락된 항목이 많아서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448부(95.7%)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7문항, 학과선택 특성 4문항, 자아존중감 9문항, 대인관계능력 40문항, 학과만족도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1965년 Rosenberg¹⁶⁾가 개발한 것을 1974년 전¹⁷⁾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1문항(8번)을 제거하고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851$ 이었다.

2.2.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는 1988년 Buhmester 등¹⁸⁾이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2001년 김과 김¹⁹⁾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처음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권리 및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 등 5개 영역(각 8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876$ 이었다.

2.3. 학과 만족도

학과 만족도 측정도구는 2000년 하²⁰⁾의 연구에서 제작·사용된 질문지에서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과 만족도는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5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이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922$ 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PSS 17.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과 선택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4	3.1
	Female	434	96.9
Age	Under 20	131	29.2
	21	155	34.6
	22	120	26.8
	Over 23	42	9.4
Grade	1	128	28.6
	2	197	44.0
	3	123	27.5
Monthly income	Under 200	64	14.3
	200~300	107	23.9
	300~400	142	31.7
	400~500	82	18.3
	Over 500	53	11.8
Paying tuition	Parents	363	81.0
	Oneself	11	2.5
	Loan	58	12.9
	The others	16	3.6
Residential type	House	278	62.1
	Living on one's own	81	18.1
	Dormitory	78	17.4
	The others	11	2.5
Commuting time	Under 30 minutes	147	32.8
	30 minutes~1 hour	94	21.0
	1 hour~2 hours	160	35.7
	Over 2 hours	47	10.5
Total		448	100.0

였고, 일반적 특성과 학과 선택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과선택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448명으로 여학생이 434명(96.9%)이었다. 연령은 21세가 15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2학년이 197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 소득은 300만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choice

Characteristics	Division	N	%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24	5.4
	Special subject	14	3.1
	Get a job ease	274	61.2
	Results of exam	19	4.2
	Recommend people around	91	20.3
	Promising future	26	5.8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Didn't know well	210	46.9
	Average	165	36.8
Aptitude for dental hygiene	Knew very well	73	16.3
	Unaptitude	91	20.3
	Usually	241	53.8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Aptitude	116	25.9
	Dissatisfaction	163	36.4
	Usually	212	47.3
Total	Satisfaction	73	16.3
		448	100.0

Table 3. Self-esteem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4.02±0.74	3.186**
		Female	3.53±0.56	
	Age	Under 20	3.57±0.61 ^a	3.670*
		21	3.50±0.48 ^a	
		22	3.51±0.50 ^a	
		Over 23	3.81±0.58 ^b	
	Grade	1	3.56±0.58	2.065
		2	3.49±0.58	
		3	3.62±0.54	
	Monthly income	Under 200	3.56±0.54 ^{ab}	2.512*
200~300		3.44±0.56 ^a		
300~400		3.59±0.54 ^{ab}		
400~500		3.50±0.62 ^a		
Over 500		3.72±0.61 ^b		
Paying tuition	Parents	3.55±0.58	1.885	
	Oneself	3.93±0.45		
	Loan	3.48±0.56		
	The others	3.57±0.54		
Residential type	House	3.58±0.55	0.635	
	Living on one's own	3.49±0.57		
	Dormitory	3.52±0.65		
Commuting time	The others	3.45±0.54	0.884	
	Under 30 minutes	3.56±0.65		
	30 minutes~1 hour	3.47±0.57		
	1 hour~2 hours	3.59±0.49		
	Over 2 hours	3.56±0.58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3.59±0.60	1.236
		Special subject	3.45±0.47	
		Get a job ease	3.53±0.56	
		Results of exam	3.40±0.57	
		Recommend people around	3.57±0.62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Promising future	3.78±0.62	2.541
		Didn't know well	3.51±0.61	
		Average	3.54±0.50	
		Knew very well	3.68±0.59	
		Unaptitude	3.38±0.62 ^a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Usually	3.50±0.51 ^a	15.395***	
	Aptitude	3.78±0.60 ^b		
	Dissatisfaction	3.50±0.57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Usually	3.56±0.55	1.671	
	Satisfaction	3.65±0.61		
Total			3.55±0.57	

*p<0.05, **p<0.01, ***p<0.001

^{a,b,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원~400만 원 미만이 142명(31.7%)로 가장 많았고 학비 부담 방법은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278명(62.1%)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160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47명(10.5%)이었다(Table 1).

치위생과 입학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아서'가 274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주위의 권유'가 91명(20.3%), '장래 유망성'이 26명(5.8%)이었으며 입학 전 치위생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210명(46.9%)으로 가

장 많았다.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41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보통이다'가 212명(47.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2.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2.1.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4.02점으로 여자의 3.53점보다 높았으며(p<0.01), 연령에 따라서는 23세 이상이 3.81점으로 다른 연령보다 높았다(p<0.05).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이 3.62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월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 원 이상이 3.72점으로 200만 원~300만 원 미만(3.44점)과 400만 원~500만 원 미만(3.50점)보다 높았다($p<0.05$). 학과 선택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중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에 따라서는 '맞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78점으로 '맞지 않는 편이다'의 3.38점, '보통이다'의 3.5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3).

2.2. 대인관계 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을 성별로는 남자가 3.63점으로 여자의 3.43점보다 높았다($p<0.05$).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은 '맞는 편이다'가 3.53점으로 '맞지 않는 편이다'와 '보통이다'의 3.4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러나 치위생과 입학동기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은 '적성, 흥미'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위생과 사전 지식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도 '잘 알고 있었다'가 3.40점으로 '보통이다' 3.16점과 '잘 모르고 있었다' 3.40점보다 높았고, 학교시설 만족도에 따른 대인

Table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3.63±0.37	2.309*
		Female	3.43±0.33	
	Age	Under 20	3.47±0.33	1.670
		21	3.43±0.32	
		22	3.39±0.32	
	Grade	Over 23	3.49±0.35	0.607
		1	3.46±0.33	
		2	3.43±0.32	
	Monthly income	3	3.42±0.33	1.638
		Under 200	3.38±0.32	
200~300		3.40±0.34		
300~400		3.45±0.33		
Paying tuition	400~500	3.46±0.30	0.114	
	Over 500	3.50±0.35		
	Parents	3.44±0.33		
	Oneself	3.38±0.39		
Residential type	Loan	3.45±0.33	1.101	
	The others	3.43±0.26		
	House	3.45±0.32		
	Living on one's own	3.39±0.34		
Commuting time	Dormitory	3.41±0.33	0.879	
	The others	3.52±0.36		
	Under 30 minutes	3.44±0.36		
	30 minutes~1 hour	3.40±0.31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1 hour~2 hours	3.46±0.32	2.053
		Over 2 hours	3.40±0.30	
		Aptitude and interesting	3.54±0.34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Special subject	3.37±0.29	2.950
		Get a job ease	3.44±0.32	
		Results of exam	3.27±0.33	
		Recommend people around	3.40±0.34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Promising future	3.51±0.39	6.941**
		Didn't know well	3.40±0.33	
		Average	3.16±0.33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Knew very well	3.48±0.31	2.279	
	Unaptitude	3.40±0.37 ^a		
	Usually	3.40±0.31 ^a		
Total	Aptitude	3.53±0.32 ^b	3.44±0.33	
	Dissatisfaction	3.40±0.34		
	Usually	3.44±0.31		
	Satisfaction	3.50±0.35		

* $p<0.05$, ** $p<0.01$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관계 능력도 '만족 한다'가 3.50점으로 '보통이다' 3.44점과 '불만족 한다' 3.40점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가 없었다(Table 4).

2.3. 학과 만족도

성별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남자가 3.83점으로 여자의 3.52점보다 높았으나($p<0.05$) 연령에 따라서는 23세 이상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치위생과 입학 동기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적성, 흥미에 맞아서'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점수에 맞추어'가 3.2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p<0.01$), 치위생과에 대한 사전 지식에 따라서는 '잘 알고

있었다'가 3.62점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의 3.4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맞는 편이다'가 3.80점으로 '보통이다'와 '맞지 않는 편이다' 3.40점보다 높았다($p<0.001$). 학교시설 만족도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3.82점으로 '보통이다' 3.58점과 '불만족한다' 3.34점보다 높았다($p<0.001$)(Table 5).

Table 5. Department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3.83±0.53	2.417*
		Female	3.52±0.49	
	Age	Under 20	3.55±0.56	1.306
		21	3.51±0.51	
		22	3.49±0.42	
	Grade	Over 23	3.65±0.54	0.089
		1	3.62±0.45	
		2	3.53±0.50	
	Monthly income	3	3.54±0.47	1.545
		Under 200	3.57±0.49	
		200~300	3.47±0.46	
		300~400	3.60±0.46	
Paying tuition	400~500	3.49±0.48	0.386	
	Over 500	3.47±0.55		
	Parents	3.53±0.48		
	Oneself	3.67±0.25		
Residential type	Loan	3.51±0.44	0.985	
	The others	3.48±0.57		
	House	3.55±0.43		
	Living on one's own	3.48±0.59		
Commuting time	Dormitory	3.48±0.52	0.740	
	The others	3.67±0.43		
	Under 30 minutes	3.52±0.54		
	30 minutes~1 hour	3.51±0.40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1 hour~2 hours	3.57±0.53	4.291**
		Over 2 hours	3.46±0.57	
		Aptitude and interesting	3.87±0.42 ^c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Special subject	3.46±0.48 ^{ab}	3.057*
		Get a job ease	3.51±0.46 ^{ab}	
		Results of exam	3.28±0.44 ^a	
		Recommend people around	3.53±0.48 ^{ab}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Promising future	3.67±0.61 ^{bc}	46.845***
		Didn't know well	3.48±0.50 ^a	
		Average	3.56±0.41 ^{ab}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Knew very well	3.62±0.52 ^b	32.277***
		Unaptitude	3.21±0.48 ^a	
Usually		3.52±0.39 ^b		
Total	Aptitude	3.80±0.48 ^c	3.53±0.48	
	Dissatisfaction	3.34±0.50 ^a		
	Usually	3.58±0.39 ^b		
	Satisfaction	3.82±0.49 ^c		

Total

* $p<0.05$, ** $p<0.01$, *** $p<0.001$

^{a, b, c, ab, 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6.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1.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0.487 ***	1.000	
Department satisfaction	0.308 ***	0.347 ***	1.000

p<0.001

3.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r=0.487$, $p<0.001$)과 학과 만족도($r=0.308$, $p<0.001$)와 유의하게 정상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도 정상관계($r=0.347$, $p<0.001$)가 있었다(Table 6).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가 높고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도 높았다.

4.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p<0.001$), 학교시설 만족도($p<0.001$), 대인관계 능력($p<0.001$), 입학동기($p<0.05$), 자아존중감($p<0.05$), 성별($p<0.05$)의 순이었다(Table 7). 즉,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을수록,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수록, 입학동기가 적성, 흥미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자가 학과 만족도가 높았고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34.6%였다.

총괄 및 고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준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은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활기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졸업 후 사회진출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선택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은 23세 이상 그룹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그룹에서, 치위생과가 적성에 '맞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높았다. 성별과 연령에서 신¹⁾과 유²⁾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김²²⁾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학과전공에 대한 적성에서 Murray 등⁸⁾은 자아존중감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 능력은 여자보다 남자가, 적성이 '맞는 편이다'라

Table 7. Effect of factor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Gender ¹⁾	-0.239	-0.087	-2.100 *
Age	-0.057	-0.115	-1.781
Grade	0.061	0.096	1.511
Monthly income	-0.024	-0.062	-1.566
Choice motive ²⁾	0.195	0.092	2.304 *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0.005	0.008	0.208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0.201	0.285	6.707 ***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0.174	0.254	6.338 ***
Self-esteem	0.084	0.101	2.21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322	0.222	4.935 ***

F=23.152, R²=0.346¹⁾Gender[0=Male], [1=Female]²⁾Choice motive[0=Above this, 1=Aptitude and Interesting]

* p<0.05, *** p<0.001

고 응답한 경우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²²⁾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대부분 여학생이지만 최근에는 남학생도 관심을 보이면서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하고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과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입학 동기에서 '적성이나 흥미가 맞아서'라고 응답한 경우, 입학시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서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점수, 취업전망, 경제적인 사정, 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장 등¹¹⁾과 임¹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학과 전공 및 적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대학 간의 MOU체결, 다양한 전공체험 활동, 정보교류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가 높고,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⁷⁾와 고²³⁾, 김²²⁾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정과 신²⁴⁾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전공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을수록,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수록,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학교만족도가 높았다. 진술한 내용과 같이 장 등¹¹⁾과 임¹⁴⁾은 입학동기 중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과를 선택한 경우에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공선택에 있어 적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과선택 시 적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입학 시 학과 선택 동기로 '취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이지만 학습 활동 과정에서는 적성을 고려한 경우와 학교시설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학과만족도가 높았다. 진로지도 시 취업전망보다는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과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과선택에 있어서 적성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반영은 학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전체 치위생과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서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소신이 강하고, 목표설정이 분명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여 성별비교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남자 대상자 확보를 통한 성별비교 연구와 신체건강, 정신건강, 직업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학과 만족도 상승효과 입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학과선택 특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는 편이다'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23세 이상과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대인관계 능력도 남자가 높았으며($p < 0.05$),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는 편이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학과 만족도는 남자가, 치위생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높았으며($p < 0.05$),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에 높았으며($p < 0.01$),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는 편이다'와 학교 시설에 대해 '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2.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r=0.487$, $p < 0.001$)과 학과 만족도($r=0.308$, $p < 0.001$)와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도 정상관관계($r=0.347$, $p < 0.001$)가 있었다.
3.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p < 0.001$), 학교시설 만족도($p < 0.001$), 대인관계 능력($p < 0.001$), 입학동기($p < 0.05$), 자아존중감($p < 0.05$), 성별

($p < 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은 적성, 학교시설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학과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성을 고려한 학과선택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의 노력과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Hong JY. How the university students stress affects their depression[Master's thesis]. Daegu: Univ. of Yeungnam, 2004.
- Kim CH, Lee HO, Lee SM. Clinical dental hygienist's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4): 345-52.
- Lee SM, Kim SJ, Han SJ.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 Korean Soc Dent Hyg* 2005; 5(4): 239-44.
- Jang GW. A study on the attitud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JinJu Health College* 1994; 17(2): 45-64.
- Song YS, Kwon SB, Ahn KS, Kim YN, Kim SH, Cha MJ. A study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dental hygiene at K-college, *Kyungbok college* 2003; 7: 297-316.
-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3): 217-25.
- Lee MS, Chae K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J Korean Cognitive Behavior Therapy* 2012; 12(1): 63-75.
- Murray SL, Holmes JG, Collins NL.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J Psychological Bulletin* 2006; 132(5): 641-66.
- Downey G, Freitas AL, Michaelis B, Khouri H.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8; 75(2): 545-60.
- Lee JW, Moon HJ, Choi MS. The research for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and adaptation of the stud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9; 10(11): 3451-7.
- Jang GW, Lee JY, Jeong MK. A study on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major adaptation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2): 335-42.
- Kim JS, Lim KO.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election and changes in a sense of employment among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06; 6(2): 103-13.
- Kim JY, Jung GO.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jor at the dept. of dental hygiene, and on attitude one's course of employment, *J Korean Soc Hyg Sci* 2008; 14(2): 117-25.
- Lim KO.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ajor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career plans[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03.
- Kim JH, Hong SH, Kim CH, Nam SH. A study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 Dent Hyg Sci* 2011; 11(6): 527-33.
-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s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26.
-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1974; 11(1): 107-30.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T, Reis HT.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8; 55(6): 991-1008.
- Kim CD, Kim SI.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udent Guidance and Research Center: Univ. of Seoul National 2001; 35(1): 83-95.
-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0.
- Yoo CS.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Gwangju: Univ. of Chonnam National, 2008.
- Kim HJ.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2; 18(1): 62-70.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62>.
- Ko JH.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ego-resilienc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the university entrants[Master's thesis]. Cheonan: Univ. of Hoseo, 2003.
-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6; 12(2): 170-7.